

전북특별자치도 공예 분야 명장 탄생

무주 진목도에 공방 운영 김상곤 작가, 도자공예 분야 명장 선정

무주공예공방에서 '진목도에 공방'을 운영 중인 김상곤 작가가 2025 전북특별자치도 공예(도자공예) 분야 명장에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장'은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는 '도자공예' 분야 김상곤 작가를 비롯해 '제과·제빵', '이·미용' 분야에서 총 3명이 선정됐다.

2012년 무주공예공방에 입주한 김상곤 작가는 무주지역의 자연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방문객 등 일반인 대상 도예 수업을 진행하는 등 생활 속 전통공예 알리기에도 헌신을 다하고 있다.



무주공예공방에서 '진목도에 공방'을 운영 중인 김상곤 작가가 2025 전북특별자치도 공예(도자공예) 분야 명장에 선정됐다.

김상곤 작가는 1981년 도예에 입문했으며 '정호 다완'을 토대로 전통에 기반한 생활 자기를 연구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그동안 대한민국 향토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남북통일 세계환경 예술대전 대상, 한민족 문화예술대전 대상 등 다수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앞으로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김 작가는 "전북을 대표하는 명장으로 전북 도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국의 도예인들이 모여드는 자연특별시 무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무주의 공예공방

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매력 있는 전통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부터 공예공방을

운영 중으로, 도자기를 비롯한 석재화 목공예 등 6개 분야 작가들이 입주해 석재화 그리기, 도자기 그릇 사람장 만들기 등의 수업을 제공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 운영

국립군산대 미술학과, 'KSNU Insight+' 지원 받아 일상 속 예술 경험 확대

국립군산대학교 미술학과가 2025 국립대학육성사업 'KSNU Insight+' 지원을 받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연계해 전시, 시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예술 체험을 제공하며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술학과 및 조형예술디자인학부 학생 12명이 참여해 회화·조형 작품 제작, 공간 연출, 시민 대상 워크숍 운영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전시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학생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드로잉, 조형물 제작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경험

할 수 있었다. 군산대학교는 지역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지역 공동체 간 지속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실제 전시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KSNU Insight+ 프로젝트는 군산 지역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 향유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 구축에 기여했다. /군산=김만호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이 11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삼상문화회관에서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가족에게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교육가족합창단을 운영해 왔다.

전북교육가족의 어울림과 음악적 울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는 교육가족합창단 1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합창곡과 조화를 이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뜻있어', '담쟁이', '엄마, 반딧불이', '7080 메들리' 등이 포함됐으며, 소프라노 신지화 이화여대 교수와 전주원동초등학교 원키즈합창단의 특별공연도 마련돼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가족이 서로의 목소리를 맞추며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노래로 마음을 잇는 교육공동체의 하모니가 전북 예술교육의 새로운 울림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2026년 국보순회전' 선정

국보 '청동방울'·보물 '농경문청동기' 등 청동기 유물 3건 5점 전시 예정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2026년 국보순회전'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국보 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국립박물관이 2024년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문화 누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시다.

전국 국립박물관 중 6개의 박물관만이 내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은 내년 하반기 약 3개월 동안 국보 '청동방울'과 보물 '농경문청동기'를 포함한 청동기 유물 3건, 5점을 전시하게 된다.

'청동방울'은 국보 146호로 이천의 삼성 선대회장이 사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유물로 부족장이나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를 지낼 때 쓴 의식용 유물로 추정된다.

'농경문청동기'는 보물 1823호로 농경과 관련한 제사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물·농기구·경작지 등을 추상적인 선으로 묘사해 농경사회 관련 의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물이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은 2008년에 개관한 제1종 고인돌 전문박물관으로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세계의 고인돌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매년 1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고창군은 "청동기와 고인돌을 대표하는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에서 청동기 유물 국보순회전 공모 선정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국보·보물인 만큼 우리 문화유산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4년 방백청동기 전시 사진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 19일 개최

김제시는 오는 19일 저녁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회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의 부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로운 계절과 꿈을 축복하는 의미를 담았다.

연말에 맞춰 준비된 이번 공연은 성탄절의 분위기를 가득 담은 캐롤과 헨델 '메시아',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현대 합창 작품들로 구성된다. 은은한 현악의 울림, 밝은 합창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한 해를 포근하게 감싸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무대에는 성탄절 분위기를 더하는 특별 협연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연주회는 저녁 7시부터 진행되며, 입장권은 김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현장 예매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 서평 - 김관영 '김관영의 도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관영의 도전'을 출간했다.

정치인의 도서 출간이 붓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출간된 책이지만 이 책이 주는 묵직한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 남다른 다가온다.

오직 전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 가지 목표로 삼아 매진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출간한 김관영의 도전은 단순한 회고록이기보다는 '도전하면 성공한다(挑戰必成)'는 뜨거운 메시지를 담아 전북도민을 비롯한 한국인에게 바치는 대한민국 혁신의 현장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메디치 미디어에서 펴낸 344쪽의 이 책은 "도민에게는 겸손하고, 행정에는 유능한 도지사"를 지향하며 한 라디의 성장과 지역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정치·행정 실천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가난한 농촌의 소년 일꾼으로 출발한 김 도지사의 성장기를 다룬다. 새끼줄을 꼬고 모내기를 돕던 어린 시절, 통학 버스 안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를 외면했던 부끄러운 기억까지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러한 진솔함이 독자의 마음을 울린다.

2부에서는 정치를 하는 김 도지사의 내밀한 모습을 드러낸다. 전북도 대표 일꾼 김관영이 지난 세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입문, 실용주의 철학을 드러내며 정치인 김관영의 진면목을 잘 알 수 있다.

실패 그다음, 전북 부흥의 서사 기술

도민 비롯한 한국인에게 바치는 대한민국 혁신의 현장 기록

3부에서는 도지사로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의 산업 재편, 투자 유치, 청년 정책,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 발전 전략이 담긴 핵심 장이다. 남다른 재치와 시각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헌신이 돋보인다.

김관영 도지사의 진정한 도전 정신은 '실패 그다음'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전북이 겪었던 쟁버리 사태를 언급하며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 그다음이다"라고 선언한다. 실패 후 좌절하는 대신, 이겨내고 도전하여 성공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다짐이다.

존 F.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며 그는 말한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정의하는 도전의 본질이다.

실패를 기꺼이 깨안아야 계속 도전할 수 있으며, 실패 속에서 얻는 교훈이 때로는 성공보다 더 소중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되었다. 취임 3년 만에 17조 원대 투자 유치, 스타트업 1조 펀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등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스스로를 '취지 않고 도전하는 챌린저 맨'이자 '일을 벌이는 도지사'라고 정의하는 그는,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다.

그가 밝힌 사업 전적은 5승 1무 1패다. 주변에서 만류하던 일들을 성공시켜 왔다. 특히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콜리아웃 서울을 49표 대 11표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는 전북이 직면한 지방 소외, 호남 소외, 호남 내 소외라는 3중의 소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목 놓아 외쳤다.

하계올림픽이아발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벤트라 믿으며, 분열에서 통합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올라서는 길을 내고자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전북도의 미래에 중요한 일이라면 스스로 준비와 연습을 거쳐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는 PT하는 도지사로 유명하다.

이러한 리더의 모습은 도청 직원과 도민들에게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전북을 윈 팀 전북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는 또한 '청년이 버티야 결국 지역이 버



치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 정치 혐오 시대에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가? 지방정부는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가? 김관영 도지사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실제 사례와 고민의 과정을 독자 앞에 펼쳐 보이며 함께 생각해 보자고 권한다.

"전북이 열어갈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는 믿음을 강조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김관영 도지사는 뿌린 씨앗의 결실을 임기 내에 보려 욕심내지 않는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여 전북이 끊임없이 부흥하는 굳건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국민에게는 겸손하게, 행정에는 유능하게' 일하는 도전적 리더십의 표본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관영의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남방한계선'을 지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불안정한 열정으로 나아가도록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 그다음에 찾아오는 성공의 서사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이 책은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며 감히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10만호 기자

릴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청년 주거, 결혼 출산 양육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부하지 않고 감으로 일하는 리더를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내도록 독려하는 내부 혁신도 추진한다.

'김관영의 도전'은 한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실용주의 정치는 가능한가? 이념과 진영을 넘어 '되는 일'을 만드는 정